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 포

2024. 7. 25.(목)

목포에서 우이도까지, 새로운 여객선 취항

- 신조 국고여객선 ‘섬사랑6호’ 7월 26일부터 운항 개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새로 건조된 섬사랑6호가 기존 여객선을 대신하여 오는 7월 26일(금)부터 운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섬사랑6호는 선사인 (주)해광운수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도초도에서 우이도까지 편도 27km를 하루 2왕복, 도초도에서 목포항까지 편도 52km를 하루 1왕복하고 있다.

‘섬사랑6호’는 목포 소재 한국메이드 조선소에서 건조된 185톤 차도선으로 여객정원은 120명, 운항속력 13.5노트, 적재 능력은 중형승용차 기준 12대로 기존 여객선에 비해 적재 능력과 운항 속력이 향상되었다.

목포청 관계자는 “더 크고 빨라진 섬사랑6호가 취항하면 해상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신안 도서지역의 농·수산물 수송도 원활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여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왕식	(061-280-1650)
		담당자	주무관	김영찬	(061-280-1657)

참고

취항 선박 제원 및 사진

□ 선박제원

선 명	섬사랑6호	총톤수	185톤
진수일	'24. 6. 27.	선종	차도선
길이/ 너비/ 깊이(m)	40 / 9 / 2.2	운항속력	평속 13.5노트
여객정원	120명	수송능력	중형승용차 기준 12대
추진기관	746KW 디젤기관 2대 (캐터필러社 1.000PS)	기타	건조비용 33억원 (설계비 등 포함)

□ 사진

